

- 2026년 2월 속회: 누룩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370/통 455)
3. 시작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8:14-21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열 두 광주리입니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광주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6. 본문의 내용

제자들이 빵 가져오기를 잊었고, 배 안에는 오직 빵 한 개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장 한 끼를 해결할 빵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빵”이 없어서하시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누룩은 순식간에 번지는 '악한 영향력'을 뜻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법에 얹매인 형식주의와 겉과 속이 다른 위선, 그리고 끊임없이 표적만을 요구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권력 지향적인 태도, 세상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18절)는 이 표현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책망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물리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지 못하는 모습,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열 두 광주리”와 “일곱 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 지파와 완전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로서 완전하고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더 이상 빵이 몇 개 인지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빵을 먹은 사람이나 남은 광주리의 숫자를 기억하거나 떡의 많고 적음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먹이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7. 나눔

최근에 내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불안을 조장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해롯의 누룩”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조급함, 하나님보다 돈이나 인맥을 먼저 의지하려는 마음, 간절함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내 삶에 빵 한 개 밖에 없는 것 같은 불안감 등)

8. 합심기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